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 2026. 11. 19.(목) 06:00 이후(11. 19.(목) 석간) / 배포 : 2026. 11. 18.(수)

아·태 교통협력 넓힌다
… 한국의 인공지능 등 미래 교통기술 공유

- 19~20일 태국 방콕에서 제5차 ESCAP 교통장관회의 참석
- 한-아·태 지속가능 교통협력 논의,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제5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교통발전**과 **미래 교통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국내 교통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고, 아·태 지역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 UN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직속 5개 지역경제위원회 중 하나 / 11.19~11.20, 태국 방콕

○ 이번 회의에는 **ESCAP 61개 회원국***의 교통 관련 부처 장·차관 및 고위급 인사가 참석해 아·태지역 **교통발전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장관선언문**과 「**아·태지역 지속가능한 교통발전을 위한 지역행동계획**(2027~2031)」을 채택할 예정이다.

* (정회원) 역내 49개국 :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 역외 3개국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준회원) 9개국 : 북마리아나 제도, 괌, 홍콩, 마카오, 미국령 사모아 등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지역 교통협력** 강화와 **AI 등 미래 기술 발전**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주요 교통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 김 위원장은 **11월 19일** 국토교통부와 ESCAP이 공동 개최하는 장관회의 부대행사인 「**아·태지역 다자·양자 기술지원을 통한 AI 기반 지속가능 교통 확대 세미나**」에 참석한다.

- 이 자리에서 **AI 기술지원 수요**가 있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기술·개발협력 역량**과 ESCAP의 **지역협력 기반**을 연계한 **협력모델**을 **발굴·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 **11월 20일** 열리는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태평양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구축 지원 등 우리나라와 **ESCAP 간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모두의 카드' 등 **국내 교통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 아울러 김 위원장은 회의 기간 중 **ESCAP 사무총장**, **태국 교통부 차관** 등과 양자면담을 갖고, 태국에 진출한 **국내 교통·물류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한다.

○ **아르미다 살시야 알리샤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ESCAP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그간 **한-ESCAP 교통협력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유엔 사무차장(Under-Secretary-General)을 겸임하고 있으며, 우리 외교부는 장관급으로 예우

○ 태국 **시리퐁 앙카사쿨키앗**(Siripong Angkasakulkiat) **교통부 차관**과는 지난 9월 한국에서 개최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2026'을 계기로 구체화된 **한-태국 교통협력 MOU**의 체결 일정과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어 태국에 진출한 **국내 교통·물류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도 전달할 계획이다.

□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ESCAP 교통장관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교통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아·태지역의 **미래 교통** 분야 **협력 확대**에 **기여**하겠다"며,

○ “특히 AI 시대 **기술지원**이 필요한 회원국들과 한국의 **교통정책 경험과 기술**을 **적극 공유**하고, **스마트모빌리티**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책임자	과 장	정송이 (044-201-4563)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044-201-33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MOVE TOMORROW

참고 1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개요

□ 설립목적

○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역내 경제·사회 분야 개발 및 국가간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산하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

□ 설립연혁

○ '47년 3월 : 경제재건 지원을 위해 ECAFE(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로 상해에서 설립 ('49년 방콕으로 이전)

○ '74년 8월 :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으로 명칭 변경

* 분야확대 : 경제 → 경제+사회, 지역확대 : 아시아.극동 → 아시아.태평양

□ 역할

○ 아시아·태평양의 경제재건과 개발, 경제 활동수준 향상 및 지역 내 국가 간 또는 지역 외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 유지·강화

* 전체 의제 논의를 위해 매년 총회 개최, 5년마다 교통장관회의 개최('26년 제5차)

○ 지속가능개발 목표 이행, 환경과 개발, 통계, 무역 및 투자, 교통 연계성, 에너지 등을 의제로 조사 및 연구 등

□ 가입국가 현황(총 62개국 → 61개국)

○ 정회원국(53개국→52개국)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북한 등

* ('26.1.30) 외교공한으로 탈퇴 통보 → ('26.4.24) 제82차 ESCAP 총회에서 탈퇴 결의안 채택

○ 준회원국(9개국) : 홍콩, 마카오, 괌, 미국령사모아 등 9개국

□ 사무국

○ 사무총장 : Ms. Armida Salsiah Alishjahbana('18.9월 취임)

○ 조직 : 행정서비스국, 사업관리국, 교통국 등 10개국으로 구성

참고 2 UNESCAP 회원국 현황

구분		국가명		
계		총 61개국 : 정회원국(52) + 준회원국(9)		
정회원국 (52)	아주지역 (24)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중국
		북한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마셜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나우루	뉴질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대한민국	스리랑카	싱가포르
		태국	통가	베트남
	최빈개도국 (14)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탁
		캄보디아	라오스	몰디브
		미얀마	네팔	동티모르
		키리바시	사모아	솔로몬 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중동지역 (1)	이란		
	유럽지역 (10)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역외)	미주 및 유럽지역 (3)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준회원국 (9)	역내 비자치지역 (9)	중국 홍콩	중국 마카오	괌
		미국령 사모아	쿡 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니우에	북마리아나 제도